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의 사회인지능력 비교 -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를 중심으로 -

이 경 숙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정 석 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신 의 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 연구는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의 사회인지능력 중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를 비교해 보고, 반응성 애착장애아 중 동작성지능이 보통수준이상인 유아와 보통하수준이하인 유아간의 사회인지능력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13개월부터 57개월 사이의 반응성 애착장애아 24명과 자폐아 8명이다. 사회적 참조는 낯선상황절차를 진행하면서 권정혜(1990)의 측정도구 중 유아의 응시빈도로 측정하였고, 공동주의는 Mundy, Sigman와 Kasari(1990)의 측정기준 중 타인이 지시(언어지시와 지적하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 언어지시만 주어진 경우)하는 곳을 바라보는 행동을 반응유무로 측정하였다. 자연스럽게 조성된 낯선상황에서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자폐아보다 어머니와 낯선이에 대한 사회적 참조행동이 많았다. 공동주의 중 언어지시와 지적하기가 동시에 제공된 경우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언어지시만 주어진 경우 반응성 애착장애아가 자폐아보다 우수하였다. 또한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경우 지능의 고·저에 따라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에 차이가 없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최근에 생긴 진단명(DSM-III, 1980)이며 이 장애의 발달 특성 및 병리적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드물어서 감별진단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치료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오류를 빚는 경우

가 있다.

반응성 애착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장애들로는 자폐적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와 발달성 언어장애 등이 있으며, 특히 자폐적장애는 진단기준(DSM-IV, 1994)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경 숙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
TEL : 031-370-6704 / E-mail : debkslee@hucc.hanshin.ac.kr

손상되었다는 점이 반응성 애착장애와 유사하여 조기 감별에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므로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폐아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반응성 애착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 기준과 치료접근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애착과 애착문제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에 들어서 발달 병리 및 소아정신 의학과 접목하여 진행되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애착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 추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인 사회인지능력에 결함을 보인다는 연구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즉 양육자가 아동의 심리 상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가 아동의 애착 유형을 결정지으며, 아동의 애착 유형에 따라 그 아동이 달성할 수 있는 마음이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아동과 양육자간의 관계가 발달의 결정적 영향을 끼치며 관계의 질이 세대간 전이된다고 밝혀졌다(이경숙, 1999; Fonagy, Steele. H, Moran, Steele. M & Higgitt, 1991; Fonagy, Steele. M, Steele. H, Leigh, Kennedy, Matton & Target, 1995).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안정성 여부는 유아기의 타인에게 반응하는 방식, 주의, 지각, 또는 기억회상의 기반이 되며 이후 사회 정서적, 인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Ainsworth, 1972; Bowlby, 1982; Sroufe, 1979; Zeanah, 1996), 애착에 문제가 있는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경우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 등 사회인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결함을 보인다는 국내연구의 보고도 있었다(송지윤, 이경숙, 김태련, 1997; 이경숙, 1997).

사회인지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지각하며 추론하고 느끼며 반응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다(Hala, 1997). Stern(1985)은 사회인지 능력은 영·유아의 상호주관적 경험들을 통해 발달한다고 보았다. 영·유아는 상호주관적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식과 타인에 대한 지식을 관련시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이 능력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영·유아는 아직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상호주관적 경험의 형태인 상호의도성(inter-intentionality), 상호주의성(inter-attentionality)과 상호정서성(inter-affectivity)은

각각 서술적 의사소통, 공동주의와 사회적 참조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근 사회인지를 마음이론(theory of mind)으로 설명하면서 자폐인과 애착문제를 지닌 사람이 보이는 마음에 대한 이해의 결핍을 비교 설명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즉 자폐증을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mindblindness) 보았고(Baron-Cohen, 1995), 애착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성적 사고기능(reflective function) 또는 심리화(mentalization)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았다(Fonagy, Steele. H, Moran, Steele. M & Higgitt, 1991; Fonagy, Steele. M, Steele. H, Leigh, Kennedy, Matton & Target, 1995). Baron-Cohen(1995)에 따르면 자폐아는 의도탐지기(Intention Detector: ID)와 시선방향탐지기(Eye Direction Detector: EDD)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나 주의공유기제(Shared Attention Mechanism: SAM)가 손상되어 마음이론기제(Theory of Mind Mechanism: ToMM)가 기능하지 않는다. 즉 자폐아는 마음이론기제(ToMM)가 기능하지 않으므로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이와 달리 Fonagy 등(1991, 1995)은 애착문제란 아동과 양육자간의 관계 질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양육자와 아동간 애착의 질이 그 아동의 마음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인지와 지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 정신지체아는 발달초기에 양육자와의 비언어적인 상호주관적 경험을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보여 사회인지능력 발달이 지체되거나 결함을 보였으며(Bradley & Meredith, 1991; Longhurst, 1972), 다운증후군 아동은 엄마에 대한 사회적 참조가 정상아동보다 2개월 늦게 발달하였고(Sorce, Emde & Frank, 1982), 사회적 참조가 더 적게 나타났다(Jones, 1980; Kasari, Freeman, Mundy & Sigman, 1995).

연구자들에 따라 사회인지능력을 사회적 참조(권정혜, 1990; Walden & Ogan, 1988), 공동주의(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감정어임(Young, Fox & Zahn-Waxler, 1999), 그리고 조망수용 능력(Yirmiya, Sigman & Zacks, 1994)등으로 연구한다. 최근에 영·유아 사회인지연구의 주요관심은 유아가 타인을 의도

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외부 대상과 사건에 대한 타인의 주의와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따라가며 지시할 수 있는가 이다(Tomasello, 1995a). 이런 행동은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가 대표적이며 생후 9개월 경부터 나타난다(Carpenter, Nagello & Tomasello, 1998).

사회적 참조란 유아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감정 정보를 구하는 것이다(Klinnert, 1984; Feinman, 1982). Walden과 Ogan(1988)은 정상 유아의 사회적 참조 발달을 종단 연구한 결과 정상 유아는 9개월이면 사회적 참조행동을 보여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정 정보를 얻기 위해 부모를 더 빨리 쳐다보고 부모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한다고 하였다. Dickstein, Thompson, Estes, Malkin과 Lamb (1984)에 따르면 생후 1년까지 정상영아가 보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 빈도는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관계와 관련 있다. 회피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에 비해 사회적 참조행동이 더 적었다. 그러나 양가적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보다 사회적 참조가 더 많았다. 송지운 등(1997)에 따르면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정상아에 비해 당황했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머니로부터 적절하게 도움을 구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정서를 잘 공유하지 못하였다. 자폐아의 사회적 참조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폐아는 언어정신연령이 통제된 조건에서 다운중후군 아동과 정상아동보다 얼굴표정에서 정서 의미를 이해하는데 결함이 있었다(Celani, Battacchi & Arcidiacono, 1999). 자폐아는 정신지체아와 정상아보다 사회적 참조상황에서 실험자와 부모를 덜 쳐다보았다(권정혜, 1990).

공동주의는 두 명 중 한 명이 어떤 대상을 볼 때 다른 한 명이 같은 대상을 보려고 몸을 돌리는 것이다(Franco & Butterworth, 1997). Scaife와 Bruner (1975)는 생후 2-14개월 된 정상유아는 연령 증가에 따라 공동주의가 증가하였고, 생후 11-14개월에는 정상유아의 100%가 공동주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공동주의를 연구한 결과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언어 연령이 통제된 조건에서 언어장애아보다 더 사람과의 눈맞춤을 피하고 공동주의에도 어려움을 나타냈다(이경숙, 이호분, 신정현, 노경선, 임연화, 1997).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정상 아동보다 공동주의가 유의미 하게 낮았으며(송지운 등, 1997), 평균 36개월 된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경중-중중도 자폐아만큼 사람과의 눈맞춤을 피하였다(이경숙, 1997). 정신지체아와 언어장애아를 통제집단으로 한 연구결과 공동주의는 자폐아에게 특징적인 결함이었다(Mundy, Sigman, Ungerer, & Sherman, 1986; Landry & Loveland, 1988; Loveland & Landry, 1986).

국내의 경우, 정상아동의 마음이론 발달시기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소 이루어졌으나 발달장애아의 사회인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므로 지능을 통제된 조건에서 고기능 자폐장애집단과 정상집단의 마음이론 발달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임연화, 이윤경, 이경숙, 신의진,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 두 집단간의 사회인지능력 차이를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스럽게 조성된 낮선상황시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는 사회적 참조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각성이 고조된 낮선상황시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는 사회적 참조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는 공동주의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4. 자연스럽게 조성된 낮선상황시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지능에 따라 사회적 참조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5.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각성이 고조된 낮선상황시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지능에 따라 사회적 참조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6.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지능에 따라 공동주의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반응성 애착장애아(이하 RAD라고 함) 24명과 자폐아(이하 Autism이라고 함)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1999년 10월에서 2000년 3월 사이에 연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와 한신발달임상센터에 내원한 유아 중 소아 정신과 전문의와 발달심리전문가이며 임상심리전문가가 의학적 진단 및 낮선상황절차, 동작성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전언어 자폐증 진단관찰 스케줄, 인지 행동적 면접과 부모와 아동 놀이 관찰 등의 자료를 토대로 DSM-IV의 준거에 따라 RAD와 Autism으로 진단한 유아들이다.

대상 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 생활연령과 동작성지능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상 유아의 생활연령은 13개월에서 57개월 사이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 정도의 수준이었다. 또한 사회인지와 지능이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RAD 집단과 Autism 집단의 동작성지능을 통제하였다. 동작성지능 검사의 보통수준 경계선은 85이므로 보통하수준이하로 통제된 결과도 표 1에 제시하였다.

동작성지능이 85미만인 RAD 11명 중 2명은 동작성지능측정이 불가능하여 이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사회성숙도검사를 통해 동작성지능이 85미만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RAD의 경우 지능과 사회적 참조, 공동주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동작성지능이 보통수준이상인 집단과 보통하수준이하인 집단으로 나누었다. 동작성지능이 85이상인 RAD 집단(N=13)의 지능 평균은 114.82(SD=26)이고, 동작성지능이 85미만인 RAD 집단(N=11)의 지능 평균은 75.22(SD=6.55)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5).

절차

연구 대상 유아들은 한신발달임상센터를 방문하여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RAD(N=24)		Autism(N=8)
	지능이 85이상 (N=13)	85미만 (N=11)	
성별 남(%)	10 (76.9)	10 (90.9)	7 (87)
여(%)	3 (23)	1 (9.1)	1 (12.5)
평균개월(SD)	37.5(13.1)	33.1(10.5)	35.4 (10.1)
동작성지능 M(SD)	114.3(26)	75.2 (6.6)	66.5 (9.3)
월소득(%)			
60-150만원	2 (15.4)	2 (18.2)	-
150-250만원	8 (61.5)	9 (81.8)	6 (75)
250-350만원	3 (23.1)	-	2 (25)
부의 학력(%)			
중졸	-	1 (9.1)	-
고졸	4 (30.8)	3 (27.3)	2 (25)
대졸	7 (53.8)	7 (63.6)	4 (50)
대학원졸	2 (15.4)	-	2 (25)
모의 학력(%)			
중졸	-	1 (9.1)	-
고졸	6 (46.2)	2 (18.2)	3 (37.5)
대졸	7 (53.8)	8 (72.7)	3 (37.5)
대학원졸	-	-	2 (25)

심리 평가 및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를 평가 받았다. 사회적 참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가장 먼저 실시하였고, 심리 평가와 공동주의는 무선적으로 배정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과정은 비디오 녹화로 기록하였다.

측정도구

1. 사회적 참조

낮선상황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 SSP,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중 장면 3과 5에서 일어나는 유아의 사회적 참조를 빈도로 측정하였다. 장면 3은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낮선이가 등장하는 자연스럽게 조성된 낮선상황이며, 장면 5는 어머니와 분리 후 재결합하는 장면으로 스트

레스가 증가하고 각성이 고조된 낮선상황이다. 장면 3에서 처음 1분 동안 낮선이가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1분이 지나면 어머니에게 말을 건넨다. 마지막 1분 동안 낮선이가 유아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놀아준다. 3분이 되면 어머니는 혼자 조용히 밖으로 나간다. 장면 5에서 나갔던 어머니는 방밖에서 유아의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며 방으로 들어간다. 어머니는 유아가 접촉을 원하면 편안하게 해준 뒤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한다.

두 장면에서 유아가 보이는 사회적 참조를 권정혜(1990)의 측정도구 중 유아의 응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유아의 응시를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 낮선이에 대한 사회적 참조와 다른 데 쳐다보기(허공이나 벽을 쳐다보기 또는 방 안에 있는 다른 물건을 보기) 3개 범주에서 빈도로 측정하였다. 장면 3은 3분 동안, 장면 5는 시작 후 30초까지 유아의 사회적 참조를 측정하였다. 장면 5에서 보이는 유아의 주 행동도 기술하였다. 낮선 상황 절차는 21분 30초 정도 소요되었다.

2. 공동주의

공동주의는 Mundy, Sigman와 Kasari(1990)의 측정 기준 중 타인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는 행동을 반응유무로 측정하였다. 검사자는 언어지시와 지적하기를 동시에 제시한 경우와 언어지시만 제공한 경우 두 경우를 측정하였다.

검사자는 유아의 맞은 편에 앉아서 유아의 이름을 부르고/부르거나 유아를 가볍게 두드림으로써 유아의 주의를 끌었다.

언어 지시와 지적하기를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 검사자는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향할 때 손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봐, (유아의 이름)아” 라고 말한다. 유아가 검사자의 손과 손이 가리키는 시계를 정확히 바라보았을 때 공동주의를 보였다고 채점한다.

언어 지시만 하는 경우 검사자는 유아를 바라보면서 “(유아의 이름)아, 그림 어디에 있지?” 라고 말한다. 유아가 자신의 뒤쪽에 걸려 있는 그림을 머리를 돌려 바라볼 때 공동주의를 보였다고 채점한다. 평가

과정은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분석방법 및 평정자간 신뢰도

1. 소아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한 유아를 발달심리 전문가 및 임상심리전문가가 심리 평가를 실시하였고, 발달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전문가, 연구자와 유아의 진단명을 모르는 다른 한 명의 평정자가 녹화 테이프를 보면서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를 평정하였다. 무선적으로 유아 10명(표본의 31.25%)의 녹화 테이프를 선정하여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사회적 참조는 평정자간 신뢰도가 .90이며 공동주의는 평정자간 신뢰도가 .92로 나타났다.

2. RAD 집단과 Autism 집단의 사회적 참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공동주의를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검증과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이용하였다.

3. RAD 집단과 Autism 집단의 동작성지능을 비교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window용 SPSS 7.5 version을 사용하였다.

결 과

동작성지능이 85미만 RAD 집단과 Autism 집단의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 비교

SSP 장면 3(자연스럽게 조성된 낮선상황)에서 동작성지능이 85미만 RAD 집단과 Autism 집단의 사회적 참조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동작성지능 85미만 RAD 집단은 Autism 집단보다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t(17) = -2.66, p < .05$)와 낮선이에 대한 사회적 참조($t(17) = -3.77, p < .05$)가 의미 있게 높았다. 두 집단은 다른 데 쳐다보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SP 장면 5(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각성이 고조된 낮선상황)에서 동작성지능이 85미만 RAD 집단과 Au-

표 2. SSP 장면 3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 낮선 이에 대한 사회적 참조, 다른 데 쳐다보기에 대한 동작성지능 85미만 RAD 집단과 Autism 집단의 차이검증표

집단	N	M	SD	t(df=17)	p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	RAD 11 Autism 8	1.91 .38	1.81 .52	-2.66	.02*
낮선이에 대한 사회적 참조	RAD 11 Autism 8	4.18 .88	2.60 1.13	-3.77	.00*
다른 데 쳐다보기	RAD 11 Autism 8	1.73 1.13	2.24 1.36	-.67	.51

* $p < .05$

표 3. SSP 장면 5에서 동작성지능 85미만 RAD집단과 Autism집단의 주 행동에 대한 빈도

	RAD f(%)	Autism f(%)
신체적인 접근	3 (27)	1 (12)
신체적인 회피	7 (64)	
울음	1 (9)	
반응없이 놀이		7 (88)
계	11(100)	8 (100)

tism 집단은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와 다른 데 쳐다보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와 분리 후 재결합하는 장면에서 동작성지능 85미만 RAD 집단과 Autism 집단의 행동상 차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동작성지능 85미만 RAD집단은 어머니에게 접근하면서 동시에 어머니를 피하거나 어머니를 쳐다보지만 다가가지 않는 행동인 신체적인 회피행동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신체적 접촉 후 유지하는 신체적 접근이 많았다. Autism 집단은 어머니와 재결합했을 때 어머니를 바라보거나 어머니쪽으로 몸을 돌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진행중인 놀이를 계속하는 행동이 가장 많았다.

동작성지능 85미만 RAD집단과 Autism 집단의 공

표 4. 동작성지능 85미만 RAD 집단과 Autism 집단간 공동주의에 대한 교차분석표

	RAD	Autism	계
언어지시 반응있음	6	2	8
+ 반응없음	5	6	11
지적하기 계	11	8	19
언어지시 반응있음	6	0	6
언어지시 반응없음	5	8	13
계	11	8	19

동주의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두 집단은 공동주의 중 언어지시와 지적하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p=.3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언어지시만 주어진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5$) 동작성지능 85미만 RAD집단이 Autism 집단보다 우수하였다.

RAD 집단에서 지능과 사회적 참조, 공동주의간의 관계

SSP 장면 3(자연스럽게 조성된 낮선상황)과 5(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각성이 고조된 낮선상황)에서 동작성지능이 85이상인 RAD 집단과 85미만인 RAD 집단의 사회적 참조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두 집단은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 낮선이에 대한 사회적 참조와 다른 데 쳐다보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두 집단의 공동주의를 알아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동작성지능이 85이상인 RAD 집단과 85미만인 RAD 집단은 공동주의 중 언어지시와 지적하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p=.06$)와 언어지시만 주어진 경우($\chi^2=.62$)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스럽게 조성된 낮선상황시 반응성 애착장애집단은 자폐장애집단보다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표 5. SSP 3, 5장면에서 동작성지능 85이상 RAD 집단과 85미만 RAD 집단의 사회적 참조에 대한 차이검 증표

		집단	N	M	SD	t(df=22)	p
S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	지능이 85이상 RAD	13	1.77	3.13	-.13	.90
		지능이 85미만 RAD	11	1.91	1.81		
S	낯선이에 대한 사회적 참조	지능이 85이상 RAD	13	2.92	1.71	-1.37	.19
		지능이 85미만 RAD	11	4.18	2.60		
3	다른 데 쳐다보기	지능이 85이상 RAD	13	.85	1.95	-1.03	.31
		지능이 85미만 RAD	11	1.73	2.24		
S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	지능이 85이상 RAD	13	1.69	.85	-0.7	.94
		지능이 85미만 RAD	11	1.73	1.35		
S	다른 데 쳐다보기	지능이 85이상 RAD	13	.31	1.11	-1.05	.31
		지능이 85미만 RAD	11	.73	.79		

표 6. 동작성지능 85이상인 RAD 집단과 85미만인 RAD 집단간 공동주의에 대한 교차분석표

	지능이 85이상	RAD	85미만 RAD	계
언어지시 + 지적하기	반응있음	12	6	18
	반응없음	1	5	6
	계	13	11	24
언어지시	반응있음	5	6	11
	반응없음	8	5	13
	계	13	11	24

참조($t(17) = -2.66, p < .05$)와 낯선이에 대한 사회적 참조($t(17) = -3.77, p < .05$)가 의미있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자폐아보다 자신과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비언어적 표현에 민감하다는 이경숙(1997)의 결과와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사회적인 상호관계와 반응성에 대해 정상적인 수용능력을 갖지만 자폐아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 윤현숙(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와 같이 있는 낯선상황에서 자폐아는 거의 사회적 참조를 보이지 않았다는 김상원, 신의진과 이경숙(199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각성이 고조된 낯선상황시 반응성 애착장애집단과 자폐장애집단은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집단은 자연스럽게 조성된 낯선상황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각성이 고조된 낯선상황 모두 다른 데 쳐다보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또는 학대나 무시를 경험한 유아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는 여러 연구자들(Eth & Pynoos, 1985; Mueller & Silverman, 1989; Spitz, 1946)의 보고와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결과는 임상현장에서 유아의 장애 진단 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불안이 고조된 상태의 RAD와 Autism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합이 비슷한 정도로 인식되어서 장애 진단의 혼선을 빚는 특성의 반영일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각성이 고조된 낯선상황에서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가 보이는 주 행동은 달랐다.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는 모두 어머니로부터 낯선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행동이 적었으나 행동 양상은 달랐다.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신체적인 회피를 보이거나(64%) 신체적인 접근을 추구하였다(27%). 이러한 결과는 반응성 애착장애집단

의 하위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때문으로 유추된다. 본 반응성 애착장애집단에는 어머니의 존재 여부에 관심 없이 행동하는 유아와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유아가 혼재 되어 있다. 따라서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신체적 접근은 정상아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응성 애착장애아 중 불안정저항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긴장되었을 때 애착 대상을 무시하거나 피한다는 최해훈, 이경숙과 김태련(1998)의 연구결과와 반응성 애착장애를 주 양육자를 안전 기지로 사용하는 것에 장애가 있는 장애로 보는 주장(Lieberman & Paw, 1988)과 일치한다. 이에 비해 자폐아는 어머니와 재결합했을 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놀이를 지속하는 행동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폐아는 자발적인 사회적 접근이 제한적이며 감정 공유가 결여되었다는 Lord(1993)의 보고와 일치한다.

셋째, 반응성 애착장애집단과 자폐장애집단은 공동주의 중 언어지시와 지적하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언어지시만 주어진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5$), 반응성 애착장애집단(반응비율=54.55%)이 자폐장애집단(반응비율=0%)보다 우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주의가 자폐아에게 특징적인 결함이라는 여러 선행 연구(Baron-Cohen, 1995; Mundy, Sigman, Ungerer, & Sherman, 1986; Sigman, Mundy, Sherman, & Ungerer, 1986)의 결과와 일치하며, 공동주의의 반응비율로 볼 때 반응성 애착장애와 자폐증은 구분되는 장애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폐아는 언어 지시로 이루어진 공동주의에서 한 명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폐아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언어지시만 주어진 때 공동주의에 결함을 보인다는 Loveland와 Landry(1986)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응성 애착장애집단은 언어지시와 지적하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와 언어지시만 주어진 경우 모두 반응비율이 54.55%로 변화가 없었다. 반응성 애착장애집단의 경우 공동주의가 언어 이해능력의 고·저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살펴볼 때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공동주의 결함은 언어이

해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있다. 그러나 자폐장애집단은 언어지시와 지적하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 반응비율 25%에서 언어지시만 주어진 경우 반응비율 0%로 저하된 것을 볼 때 자폐아의 공동주의결함은 언어이해능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폐아의 경우 공동주의가 언어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Mundy, Sigman, Ungerer와 Sherman(1987)의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자연스럽게 조성된 낮선상황시 동작성지능이 보통수준이상인 반응성 애착장애집단과 보통수준이하인 반응성 애착장애집단은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 낮선이에 대한 사회적 참조와 다른 데 쳐다보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경우 지능과 사회적 참조간의 일관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폐아의 경우 정신연령에 따라 사회적 참조 빈도가 다르다는 권정혜(1990)의 결과에 비추어 해석해 볼 때 반응성 애착장애 유아의 경우는 자폐 유아와는 달리 지능보다 어머니와의 부적절한 애착관계가 어머니의 감정 정보를 이용하는 데 영향을 끼침을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각성이 고조된 낮선 상황에서 동작성지능이 보통수준이상인 반응성 애착장애집단과 보통수준이하인 반응성 애착장애집단은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참조와 다른 데 쳐다보기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낮선이와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는 낮선상황에 대한 정보를 어머니보다 낮선이로부터 구하였으나 어머니만 있는 상황에서는 어머니로부터 감정 정보를 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어머니보다 타인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한다는 이경숙, 김수연, 신의진과 김태련(1995)의 결과와 일치하며, 반응성 애착장애는 어머니와의 관계 장애라는 Zeanah(1996)의 주장과 일치한다.

여섯째, 동작성지능이 보통수준이상인 반응성 애착장애집단과 보통수준이하인 반응성 애착장애집단은 공동주의 중 언어지시와 지적하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와 언어지시만 주어진 경우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응성 애착장애의 경우 지능이

공동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와 다운증후군 아동의 경우 지능에 따라 공동주의능력이 다르다는 여러 선행연구(Landry & Chapieski, 1989; McCollum, 1987)의 결과를 근거로 반응성 애착장애와 정신지체는 공동주의 능력면에서 구별되는 장애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로 정상유아 8명의 공동주의를 알아보았다. 정상유아의 생활연령은 19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이며 평균 연령은 31개월였고, 동작성지능의 평균은 125.38($SD=59.41$)로 보통수준이상에 속하였다. 동작성지능을 보통수준이상으로 통제된 조건에서 정상유아집단과 반응성 애착장애집단의 공동주의를 비교한 결과 정상유아집단은 언어지시와 지적하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와 언어지시만 주어진 경우 모두 반응비율이 100%였으나 반응성 애착장애집단은 반응비율이 54.55%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양육자와 맺고 있는 애착의 질이 유아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Fonagy(1998)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합 증세의 유사성을 보이는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의 사회인지능력 중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영·유아, 아동의 발달장애를 다루는 임상 영역에서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를 조기 진단하고 감별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인지능력 여부에 관한 연구가 만 4세 이상의 아동이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유아연령수준의 발달 장애아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사례수가 적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할 추수 연구와 유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능력을 사회적 참조와 공동주의만을 이용하여 연구하였으므로 감정이입과 조망수용능력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서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자폐아의 사회인지능력 결합에 관한 타당성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언어능력이 결합된 공동주의를 측정하였으므로 연구 대상 유아의 언어능력 수준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 공동주의 결합이 근본적인 사회인지능력의 문제인지 또는 언어기능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원, 신의진, 이경숙(1997). 자폐아동의 애착 안정성. *대한소아정신의학지*, 8(2), 175-182.
- 송지윤, 이경숙, 김태련(1997). 애착장애아의 애착 Q-Set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0(1), 48-59.
- 이경숙(1997). 애착장애 아동의 특성과 부모-아동 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숙(1999). 애착문제/장애 영유아 부모의 상호작용. *발달지원학회 제 3차 워크샵 발표논문*.
- 이경숙, 김수연, 신의진, 김태련(1995). 반응성 애착장애아, 전반적 발달장애아, 언어 장애아의 놀이수준 및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57-72.
- 이경숙, 이호분, 신정현, 노경선, 임연화(1997). 반응성 애착장애아와 발달성 언어장애아의 의사소통 의도 비교 연구. *대한소아정신의학지*, 8(2), 207-216.
- 임연화, 이윤경, 이경숙, 신의진(1999). 학령 전 아동과 자폐장애 아동의 마음이론 발달 비교. 『1999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1999년 8월 19일. 서울: 연세대학교.
- 윤현숙(1991).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발달 및 병리 특성에 관한 일 연구-Schloper의 교육 심리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1998).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31-12.

- Ainsworth, M. D. S. (1972). Attachment and dependency: A comparison. in J. L. Gewirtz (ed.). Attachment and dependency. 97-177. Washington, D. C.: Winston.
- Ainsworth, M. D. S.,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Baron-Cohen, S. (1995). *Mindblindness*. Boston: MIT/Bradford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adley, L. J., & Meredith, R. C. (1991). Interpersonal development: A study with children classified as educable mentally retarded.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26, 130-141.
- Carpenter, M., Nagell, K., & Tomasello, M. (1998). Social Cognition, Joint Attention,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from 9 to 15 Months of Ag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3 (4, Serial No. 255), 1-143.
- Celani, G., Battacchi, M. W., & Arcidiacono, L. (1999). The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Meaning of Facial Expressions in People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9(1), 57-66.
- Dickstein, S., Thompson, R. A., Estes, D., Malkin, C., & Lamb, M. E. (1984). Social referencing and the security of attach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7, 507-516.
- Eth, S. & Pynoos, R. (1985).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psychic trauma in childhood. In C. R. Figley (Ed.), *Trauma and its wake*. New York: Bruner Mazel.
- Feinman, S. (Ed.). (1982). Social referencing in infancy. *Merrill-Palmer Quarterly*, 28, 445-470.
- Feinman, S., D. Roberts, K-F. Hsieh, D. Sawyer., & D. Swanson. (1992). A critical review of social referencing research: uncertainty, self, and the search for meaning. See Feinman (1992: 79-94).
- Fonagy, P. (1998). Prevention, the appropriate target of infant psycholog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9(2), 124-150.
- Fonagy, P., Steele, H., Moran, G., Steele, M., & Higgitt, A. (1991). The capacity for understanding mental states: The reflective self in parent and child and its significance for security of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 200-217.
- Fonagy, P., Steele, M., Steele, H., Leigh, T., Kennedy, R., Matton, G., & Target, M. (1995). Attachment reflective self, and borderline states. In S. Goldberg, R. Muir, & J. Kerr (Eds.),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 pp. 233-278. New York: Analytic Press.
- Franco, F., & Butterworth, G. (1997). Pointing and social awareness: Declaring and requesting in the second year. *Journal of Child Language*, 23, 307-336.
- Hala, S. (1997).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UK: Psychology Press.
- Jones, O. (1980). Prelinguistic communication skills in Down's syndrome and normal infants. In T. Field, S. Goldberg, D. Stern, & A. Sostek (Eds.), *High-risk infants and children: Adult and peer interactions* (205-225). New York: Academic Press.
- Kasari, C., Freeman, S., Mundy, P., & Sigman, M. (1995). Attention regulation by children with down syndrome: coordinated joint attention and social referencing look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0(2), 128-136.
- Klennert, M. D. (1984). The regulation of infant

- behavior by maternal facial expres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7, 447-465.
- Kown, J. H. (1990). *Emotional Responsiveness in Autistic, Mentally Retarded, and Norma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Landry, S. H., & Chapieski, M. L. (1989). Joint attention and infant toy exploration: Effects of Down syndrome and prematurity. *Child Development*, 60, 103-118.
- Landry, S., & Loveland, K. (1988). Communication behaviors in autism and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9, 621-634.
- Lieberman, A. F., & Pawl, J. H. (1988).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325-351). Hillsdale, NJ: Erlbaum.
- Longhurst, T. M. (1972). Assessing and increasing descriptive communication skills in retarded children. *Mental Retardation*, 10(2), 42-45.
- Lord, C. (1993). Early social development in autism. In E. Scholer, M. Bourgondien & M. Bristol (Eds.), *Preschool issues in autism*. (pp. 61-94). New York: Plenum Press.
- Loveland, K., & Landry, S. (1986). Joint attention in language in autism and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6, 335-349.
- McCollum, J. A. (1987). Recognition memory in Down's syndrome and normal infants. *Child Development*, 45, 651-660.
- Mueller, E., & Silverman, N. (1989). Peer relations in maltreated children.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ndy, P., Sigman, M., Ungerer, J., & Sherman, T. (1986). Defining the social deficits of autism: The contribution of nonverbal communication measur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7, 657-669.
- Mundy, P., & Sigman, M. Ungerer, J., & Sherman, T. (1987). Defining the social deficits in autism: the contribution of nonverbal communication measur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7, 657-669.
- Scaife, M. & Bruner, J. S. (1975). The capacity for joint visual attention in the infant. *Nature*. Vol. 253, January 24, 265-166.
- Sorce, J. F., Emde, R. N., & Frank, M. (1982). Maternal referencing in normal and Down's syndrome infants: A longitudinal analysis. In R. Emde & R. Harmon (Eds.),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affiliative systems* (pp. 281-292). New York: Plenum Press.
- Spitz, R. (1946). Anaclitic depress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child*, 2, 313-342.
- Sroufe, L. A. (1979).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J.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462-516. New York: Wiley.
- Stern, D. (1985). *The interpersonal world of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Tomasello, M. (1995a). Joint attention as social cognition. In C. Moore & P. Dunham (Eds). *Joint attention: Its origins and role in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Yirmiya, N., Sigman, M., & Zacks, D. (1994). Perceptual perspective taking and seriation abilities in high-functioning children with autism. *Developmental Psychology*, 35(5), 1189-1197.
- Young, S. K., Fox, N., & Zahn-Waxler, C. (1999). The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empathy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gy, 35(5), 1189-1197.

Zeanah, C. H. (1993).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 New York: Guildford Press.

Zeanah, C. H. (1996). Beyond Insecurity: A re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disorders of infa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

ogy, 64, 42-52.

원고접수일 2000. 7. 24

수정원고접수일 2000. 10. 12

게재결정일 2000. 10. 24 ■

**A Comparative Study of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with Autistic Child in Social Cognition
- Focused on Social Referencing and Joint Attention -**

Kyung Sook Lee

Hanshin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Seok Jin Jeong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Educational
psychology

Yee Jin Shin

Yonsei university
colleage of Medical
Dept. of Psychiatry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mpare RAD children with autistic children in social cognition. Also RAD children whose LIPS are above the average compared with those whose LIPS are below the average in social cognition. A social referencing and joint attention were used to examine the social cognition. 32 children(24 RAD, 8 autistic children) ranged in CA from 13 to 57 months. Of the 24 RAD children, 11 were matched as a group with the children who had autistic on MQ. Social referencing was measured by the children's gaze frequency which is one of the Kown's measurements(1990) in SSP. Two measures(language, language+gesture) of joint attention were obtained using the Mundy, Sigman and Kasari(1990). The results from this study read as follow. 1) A social referencing in SSP(Strange Situation Procedure) was RAD children > MQ-matched autistic children. 2) The RAD children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autistic children about the social referencing to their mothers in distressed SSP. RAD children displayed avoidant behaviors and autistic children played with the toy without any reaction toward their mothers. 3) Joint attention was RAD children > MQ-matched autistic children 4) Both social referencing and joint attention experiments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Q within the RAD children.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RAD show significant difference from autistic disorder about the social cognition.